

인간사회와 동물무리를 동일시하는 사회생물학의 반동성

김 금 남

사회생물학의 반동성을 철저히 폭로 비판하는것은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짓부셔버리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생물학은 사회를 생물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면서 인간사회와 동물무리를 동일시하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사회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을 단순한 자연적, 생물학적존재로 보는 견해는 의식의 조절통제밑에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본능에 의하여 지배되는 생물학적존재와의 질적차이를 구별할수 없게 한다.》(《김정일선집》 제18권 증보판 77페이지)

사회생물학은 20세기 후반기 미국에서 발생하여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 류포되면서 해독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사회생물학의 대표자는 미국의 에드워드 월슨(1929—)이다. 그의 저서는 《사회생물학》(전 5권 1975)이다.

사회생물학은 동물무리와 인간사회를 하나의 생물학적원리에 기초하여 통일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사회생물학은 동물무리와 인간사회가 생물학적공통성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사람만이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부정하고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게 되는 출발점을 외곡하였다.

인간사회와 동물무리를 동일시하는 사회생물학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부정함으로써 사회적존재와 생물학적존재의 근본차이를 부정한다는데 있다.

월슨은 동물무리에도 인간사회와 같은 특성(실례로 협조적교제)이 존재하기때문에 동물무리도 하나의 사회로 볼수 있다고 함

으로써 무리를 이루고 생활하는 생물학적존재인 동물을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생활하는 사회적존재인 사람과 동일시하였다.

그러나 인간사회와 동물무리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회는 동물의 무리일반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사람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세계에 사회란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는 물질세계의 발전과정에 사람이 출현하면서 생겨났다. 동물의 무리는 결코 사회의 범주에 속할수 없다.

사회의 본질은 사회적재부를 가지고 사회적관계로 결합된 사람들의 집단이라는데 있다.

사람이 출현하기 이전에도 자연계에 생존을 위하여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존재하였으나 그것은 사회라고 할수 없었다. 자기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라는데 자연과 구별되는 사회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인간사회와 동물무리가 근본적으로 차이나는것만큼 사회적존재에 사람뿐아니라 무리를 이루고 사는 순수 생물학적존재인 동물까지 포함시키는것은 비과학적인 궤변에 불과하다.

사회적존재와 생물학적존재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적존재는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살며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생물학적존재는 본능에 따라 맹목적으로 살며 활동하는 생명물질일반을 의미한다.

사람은 순수 정신적존재도, 단순한 생물학적존재도 아니다. 사람은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존재라는 뜻으로서 자연적존재와

구별하기 위하여 쓰는 말이다.

사회적존재는 세계를 개조하여 자기에 게 복무하게 만듦으로써 생존하며 발전한다는데서 생물학적존재와 구별된다.

사람은 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본능에 의하여 움직이는 동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람이 활동하는 과정은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발현되는 과정이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은 사람의 존재방식이다.

생명을 가진 다른 모든 물질은 객관세계에 종속되고 순응함으로써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지만 사람은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하여 자기에 게 복무하게 만듦으로써 생존하며 발전하는것이다.

생물학적존재에 있어서는 그 운명이 객관적생활환경에 어떻게 순응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생물학적존재는 객관적생활환경에 의하여 그 운명이 결정되는 자연의 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객관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면서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세계의 주인, 세계의 개조자이다.

사회적존재는 사회적집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빛내이기 위하여 살며 활동한다는데서 생물학적존재와 구별된다.

생물학적존재는 육체적생명만을 가지고 그 요구에 따라 활동하지만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육체적생명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은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것을 밝히었다. 육체적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고유한 생명이다.

사람은 단순한 생물학적존재와는 달리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긴다. 육체적생정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것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생명의 요구를 떠나 육체적생명의 요구만을 추구한다면 아무리 풍족한 물질생활을 누린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값높은 생활로 될수 없으며 그러한 물질생활은 사람의 본성과 배치되는 동물적인 생활이나 다름없는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생활로 전락되고만다.

오늘 부르조아반동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이 사람에게 의한 사람의 착취와 지배를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사람을 개인의 물질적욕망만 추구하는 저속한 존재로 보는 것은 사람의 생명의 본질과 삶의 가치에 대한 부르조아적관점과 립장의 반동성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현의 하나이다.

부르조아사상가들이 사회적존재와 생물학적존재의 근본차이를 외곡하는 반동적목적은 바로 사람을 동물적존재로 외곡함으로써 근로대중을 자본의 착취의 노예로 만들려는데 있다.

인간사회와 동물무리를 동일시하는 사회생물학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게 되는 출발점을 외곡함으로써 동물세계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를 합리화한다는데 있다.

월슨은 동물도 사람과 같이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하면서 《사회》를 이루고 사는 생물을 《사회성생물》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회성생물》이란 《사회》를 이루고 사회적행동을 하는 생물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월슨은 여기에 흰개미, 꿀벌, 물고기, 승냥이, 원숭이 등 동물과 함께 사람도 포함시키고있다.

이처럼 동물도 사회적존재에 포함시킨다면 사람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

지게 되는 출발점을 모호하게 만드는것으로 된다.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게 되는 출발점은 다른 물질적존재와의 공통성의 발전이 아니라 그 어떤 물질적존재도 가질수 없는 특성, 사람만이 가지고있는 특성에 있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다른 물질적존재는 가질수 없는 고유한 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게 된다.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람이 사회적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사회력사적과정에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회적속성이다. 사람이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존재로 발전할수 없었을것이다. 사람의 사회적속성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발생과 발전과정 다시말하여 사람의 사회적활동과 사회적관계의 력사적발전과정을 통하여서만 형성발전될수 있다. 사회의 발전력사가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력사라고 하는것은 곧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발전되는 사회적속성이라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철학적고찰에서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회생물학은 사람만이 사회적존재라는것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사람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존재로 되는 근원을 외곡부정하였다.

사회생물학은 사람만이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부정하고 사람이 본질적특성을 가지게 되는 출발점을 외곡함으로써 결국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진화의 산물로 외곡

하였다. 즉 《사회성생물》이라는 개념을 조작함으로써 동물도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같은것을 맹아적으로 가질수 있는것처럼 주장하고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동물에게 있는 속성의 발전완성인것처럼 외곡하였다.

뿐만아니라 사회생물학은 사람만이 고급한 목적의식적인 창조활동을 하게 되는 근원을 인간의 유기체의 특수성에 귀착시켰다.

사회생물학은 사람의 특이한 언어활동, 노동활동, 사회활동 등을 순수 성대구조, 뇌수크기, 골격구조와 같은 유기체의 특성에서부터 출발하여 설명하고있다. 이것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유기체의 산물, 진화의 산물로 보는것으로 된다. 사회생물학의 주장은 결국 사람의 본질적특성의 사회력사적성격을 외곡하고 그 어떤 생물학적속성의 진화의 산물로 보는 허황한 궤변인것이다.

사회생물학은 이처럼 동물무리도 인간사회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회》라는 전체 밑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사회행동》을 통일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면서 사람만이 사회적존재이라는것을 부정함으로써 사회적존재인 사람과 생물학적존재인 동물과의 근본차이를 부정하고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고유한 특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마치 유기체의 특성과 관련되는 생물학적속성의 진화의 산물인것처럼 외곡하였다.

인간사회와 동물무리의 근본차이를 부정하는 사회생물학의 반동적목적은 사람을 동물적존재로 외곡함으로써 사람의 모든 행동의 사회적성격을 거부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그대로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현상을 자연스러운것으로 정당화하려는데 있다.